

류현진 '완벽투'...어버이날 이은 美 어머니날 특별 선물

7⅓이닝 노히트...8이닝 무실점 1피안타로 5승 수확
24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스트래즈버그에 판정승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완 봉쇼에 이어 이번엔 7⅓이닝 노히트 쇼를 펼치며 시즌 5승(1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벌인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워싱턴 타선을 단 1안타, 무득점으로 완벽하게 봉쇄했다. 8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던 류현진은 좌타자 헤라르도 파라에게 원바운드로 팬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를 맞고 아쉽게 노히트 달성 꿈을 접었다. 노히트 행진이 중단됐지만, 류현진은 8이닝 무실점 패투를 선사했고 6-0으로 앞선 9회 마무리 켈리 안선에게 배턴을 넘겼다. 경기는 6-0 다저스의 승리로 끝나 류현진은 시즌 5승째를 신고했다. 류현진은 2013년 바리그 진출 후 한 경기 개인 최다인 공 116개를 던졌다. 또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수로 평균자책점을 1.72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이 5이닝 이상 던져 안타를 1개만 맞은 건 2017년 8월 7일 뉴욕 메츠전(7이닝 무실점 승리), 2018년 4월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6이닝 무실점 승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현진은 올해 바리그 최고 연봉 투수인 워싱턴의 스티븐 스트래즈버그(3천833만 달러·약 452억원)와의 선발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둬 '에이스잡는 에이스'로 입지를 굳혔다. 류현진은 1회 10개의 공으로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범퇴로 산뜻하게 출발한

뒤 2, 3회에도 한 명의 주자를 누상에 보내지 않은 채 퍼펙트 투구를 이어갔다. 타순이 한 바퀴 돌아 4회 다시 만난 워싱턴 톱타자 애덤 이튼을 풀 카운트 대결에서 1루수 땅볼로 요리한 류현진은 브라이언 도저에게 볼 3개를 잇달아 던진 뒤 결국 볼넷을 줬다. 시즌 세 번째 볼넷 허용이자 안방에서 지난해 8월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래 66이닝(포스트시즌 포함) 만에 처음으로 허용한 볼넷이었다. 그러나 후속 타자 두 명을 삼진과 뜬공으로 잡고 위기를 스스로 지웠다. 3회까지 공 39개를 던졌다가 4회에만 24개를 뿌린 류현진은 5회 다시 평정심을 찾은 뒤 10개만 던져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치고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6회 1사 후 투수 스티븐 스트래즈버그에게 첫 안타를 내줄 뻔했다. 스트래즈버그는 풀 카운트에서 류현진의 바깥쪽 속구를 밀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성 타구를 날렸다. 다저스 우익수 벨리지가 이를 잡아 강한 어깨를 자랑하며 1루로 총알처럼 송구해 타자 스트래즈버그를 잡아냈다. 비디오판독에서도 아웃으로 판정된 원심은 바뀌지 않았다. 류현진은 삼진 2개를 보태며 7회를 거뜬히 넘긴 뒤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이미 98개의 공을 던져 한계 투구에 다른 상태였지만, 노히트 행진 중인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끌어내릴 수 없었다. 류현진은 첫 타자 커트 스즈키를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파라와 맞섰다.

전날 역전 만루포를 터뜨린 파라는 볼 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6km 짜리 빠른 볼이 들어오자 과감하게 방망이를 돌려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노히트가 깨진 장면을 지켜본 뒤 조용히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관중석의 팬들은 기립박수로 류현진에게 더 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류현진은보내 기 번트로 주자를 3루에 보낸 뒤 8번 타자 마이클 A. 테일러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무실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다저스는 2회 말 워싱턴 스트래즈버그를 상대로 선취점을 냈다. 4번 타자 코디 벨리지가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을 고른 뒤 곧바로 2루를 훔쳤다. 알렉스 버두고의 땅볼 때 3루에 간 벨리지는 코리 시거의 좌익수 쪽 희생플라이 때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4회에는 1사 후 저스틴 터너가 팀의 첫 안타를 쳤고, 벨리지가 좌익수 쪽 안타로 2, 3루 찬스를 이었다. 버두고가 2루 땅볼로 터너를 홈에 불러들여 다저스는 2-0으로 점수를 벌였다. 시거는 8회 말 무사 만루에서 우측 팬스를 직선타성으로 넘어가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려 썩기를 박았다.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어버이날이던 8일 완봉승을 거둔 데 이어 미국 현지시간으로 어머니의 날인 이날 또 패투로 승리를 따내 시구자로 나선 어머니 박순순 씨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했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2019 메이저리그(MLB) 경기 6회에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선발 등판해 8이닝 9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5승(1패)째를 수확했다.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연합뉴스

'158전 159기' 강성훈, 첫 PGA 투어 우승

AT&T 바이런 벨슨 제패
한국 선수 6번째 정상



강성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라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강성A) 투어 AT&T 바이런 벨슨 최종 4라운드 10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P·연합뉴스

강성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했다. 강성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라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파71·7천558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벨슨(총상금 79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공동 2위인 맷 에브리(미국)와 스콧 피어시(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1년부터 PGA 투어에서 활약한 강성훈은 부진으로 2013~2015년 투어 카드를 잃고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뛰기도 했으나 159번째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꿈을 이뤘다. 우승 상금은 142만2천 달러(약 16억7천만원)다. 한국 국적 선수의 최근 PGA 투어 대회 우승은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김시우(24) 이후 2년 만이다. 강성훈은 최경주(49·8승), 양용은(47·2승), 배상문(33·2승), 노승열(28·1승), 김시우(2승)를 이어 한국인 6번째로 PGA 투어 무대 정상에 올랐다. 13일 오전 전역 경기부터 치른 강성훈은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더 줄이고 3라운드를 3언더파 68타로 마쳤다. 에버리는 잔여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잡았지만 4개 홀 연속 보기로 흔들리며 3라운드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강성훈은 1~3라운드 합계 19언더파 194타로 에버리를 다시 3타 차로 제치고 선두가 됐다.

4라운드에서도 선두 경쟁은 치열했다. 강성훈은 1번 홀(파5) 버디를 2번 홀(파3) 보기로 맞바꿨지만, 8번(파3)·9번(파4)·10번(파4) 홀 연속 버디로 다시 치고 나갔다. 에버리는 1~6번 홀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치는 '몰아치기'로 강성훈을 위협했다. 10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했다. 강성훈과 에버리는 14번 홀(파5)에서 나란히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를 이어갔다. 그러나 15번 홀(파4)에서 승부가 갈렸

다. 강성훈이 약 7m 버디 퍼트에 성공한 반면, 에버리는 보기를 기록하면서 강성훈이 2타 차 단독 선두가 됐다. 17번 홀(파3)을 파로 막은 강성훈은 18번 홀(파4)에서 보기를 치고도 우승을 확정했다. 강성훈은 이 우승으로 2020~2021시즌 PGA 투어 카드를 획득했고, 내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마스터스 출전권도 따냈다. 강성훈은 "승부감은 경기가 끝

광주세계수영대회 태극마크 주인공은

18일부터 국가대표선발전...김서영·임다솔 선전 예상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선수는 누가 될까. 대한수영연맹(KSF)은 18일부터 나흘간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2019수영(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대회를 시행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설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치러진다. 지난 3월 열렸던 1차 선발전은 7월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1차 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됐던 선수들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2차 선발전전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선발전에서는 순위뿐만 아니라 국제수영연맹(FINA) A 기준기록 통과 여부도 중요하다. FINA가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는 한 나라에서 종목별로 A 기준기록 통과자 중 두 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선발전에서 2위를 했더라도 A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출전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선수 중 A 기준기록을 통과할만한 선수는 많지 않다. 1차 선발전 기준으로는 김서영(경북도청)과 임다솔(아산시청) 둘뿐이었다. 연맹은 "최대한 많은 선수를 선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선수단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차전에서 A 기준기록을 통과한 김서영(개인최종 200m)과 임다솔(배영 200m)은 2차 대회에서도 선발이 유력하다. 접영 100m의 안세현(SK텔레콤)과 접영 200m의 박수진(경북도청)도 A 기준기록에 근접해 이번 대회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2차 선발전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팬클럽 선정 '올해의 선수·골'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이 팬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을 휩쓸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토트넘 구단은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새벽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스타디움에서 끝난 에버턴과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2-2무) 이후 팬클럽 회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 시상식 장면을 공개했다. 전 세계 토트넘 팬클럽 회원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득점'은 모두 손흥민의 몫이었다. 구단은 "한국축구대표팀의 스타 손흥민이 에버턴과 최종전 이후 이어진 '엔드 오브 시즌 어워즈' 행사에서 상을 휩쓸었다"라며 "징계로 에버턴전에 나서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경기가 끝



난 뒤 지난해 11월 첼시를 상대로 뽑아낸 놀라운 득점에 대한 '올해의 골' 트로피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턴전이 끝나고 나서도 팬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최종전을 즐겼다"라며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주니어 선수', '공식 팬클럽 선정 올해의 선수'까지 트로피를 휩쓸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FC '펠리페 극적골' 부산아이파크 원정서 1-1

광주FC가 후반 막판 터진 펠리페의 동점골에 힘입어 부산아이파크와 비겼다. 광주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 2 2019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종준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막판 펠리페가 극적인 동점 골을 터트리며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로써 6승 5무 승점 23점을 기록,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광주는 후반 후반 22분 부산 이종준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28분 광주의 펠리페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친 후 원발 갑아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35분엔 월리안이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아쉽게 빔나갔다. 이어 추가시간 펠리페가 페널티킥을 얻었다. 펠리페는 직접 키커로 나서 동점 골을 기록했다. 양 팀의 승부는 1-1로 마쳤다. /차이정 기자 chaajung@